



### 일지 스님의 감춰진 불교이야기

#### 13. 경화와 로올라

종교와 인간이라는 화두를 들고 먼지 낀 이리저리 책을 살피다보면 불교 고승들과 가톨릭 성인들의 삶이 놀랍게도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서로 다른 역사와 교리를 갖고 있는 동·서양의 대표적인 종교 성자들이 보여준 결정적인 회심과 발심, 세속의 포기, 고행, 깨달음의 동일한 경지는 이 두 종교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불교의 성인들은 지혜와 자비를 투철하게 펼치며 자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며, 가톨릭 성인들 역시 그들의 신앙이 도달한 정점에서 우리나라 종교적 실천으로 일관된 삶을 산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불교와 가톨릭의 성인들은 모두 그 신앙과 사상의 진리성을 자신의 삶에서 자명하게 증명하여 인류의 역사에 진리의 씨앗을 뿌린 사람들인 것이다.

그렇다면 불교-가톨릭 성인들의 삶과 경지는 어떻게 일치하고 있을까. 가톨릭의 성 안셀무스(1033-1109)는 세속시절 승속으로 사상을

던 것을 깨닫고 선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처럼 가톨릭 예수회의 창시자, 로올라도 페스트를 체험하고 결정적인 회심을 체험하게 된다.

로올라는 1521년 스페인과 프랑스의 전쟁에서 부상당한 뒤 속세의 생활을 청산하고 수도자의 길을 가고자 바로셀로나를 향해 길을 떠났다. 1522년 페스트로 죽어가는 거리를 본다. 로올라는 그 페스트의 거리에서 결정적인 회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연을 결정적인 발견의 순간으로 바꾸는 영지의 힘이며, 어떤 위대한 발견이나 종교적인 전환에는 영지의 직관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 직관의 내용을 깨달음의 내용을 보리심(菩提心)이라고 하며 원효는 <보업경소>하권에서 "깊고 그윽하여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 바로 영지의 가르침이다(深玄難測是靈智)"고도 쓴다.

그리고 여기에 또 두 사람의 엄격한 고행자들이 있다. 바로 당대 승종의 조과 도림과 시리아의 성 시메온이다. 조과 도림은 <조당집>에 시인 백락천의 스승으로 기록될 정도로 눈부신 견지를 가진 승승이었지만 그 이름, 조과(鳥)처럼 깎는 나무 꼭대기에 딱지를 얹어매고 살았다. 성 시메온 역시 엄격한 금욕과 고행을 위해 높은 기둥 위에 올라가 명상과 기도도 일관된 삶을 살았다. 뒷날 시메온의 경지를 부러워한 사람들이 두주과(頭柱)라는 것을 세울 정도로 금욕주의자들의 표상이 된 인물이라 바로 시메온이다.

이와 같은 성인들의 동일한 경지는 두 종교가 서로 배우고 협력해야 할 가능성도 보여준다. 그러나 여기서 먼저 단서를 알아야 할 점이 있다. 그 대화와 일치하는 타종교의 성직자들이 서로 만나서 함께 노래 부르고 밥을 먹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의례적인 교류일 뿐, 타종교에 대한 깊은 이해가 뒷받침된 대화와 일치, 그리고 서로의 일치하는 경지를 학습하는 수준까지는 도달하기 어렵다. 특히 "여타 다른 세계종교를 복음으로의 준비일 뿐이라고 보는 가톨릭의 보편주의적 성취설"이라는 선교 전략을 가진 제국주의적 종교의 몸서리치는 아만과 위선의 역겨움을 생각할 때 표면적인 대화와 일치는 오히려 그들이 오랫동안 써먹은 '트로이의 목마'일 뿐이다.

■ 경화회 회주

### 불교 고승과 가톨릭 성인 일관된 삶 살아

갔다 한 마리의 사슴을 보고 활을 겨누는. 그러나 안셀무스는 활을 쏠 수 없었다. 사슴의 머리가 찬란한 후광으로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회심의 순간을 맞이한 안셀무스는 그 자리에서 회사를 켜 버리고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는 마조 도일의 제자였던 석공 해장에게도 일어났다. 석공 해장은 출가하기 전 사슴을 쫓아 다녔던 사냥꾼이었다. 어느 날 사슴을 쫓다가 마조가 머물던 암자까지 간 해장은 마조로부터 "그대 자신의 무명번뇌는 왜 쫓지 않는가"라는 설법을 듣고 회사를 켜 버린 뒤 승승의 길을 가게 된다.

동일한 회심을 길을 걸어간 두 인물이 여기에 또 있다. 경화와 이그나티우스 로올라이다. 경화가 옛 스승 계허를 방문하기 위해 길을 떠났다가 콜레라로 소멸되어 가는 마을에서 회심한 뒤, 강단에서의 교리는 머리속의 고리, 해탈은 언어속의 해탈이요 말장난이었으며, 가면 위의 회장에 불과했

# 불상에 생명력 불어넣는 의식

## 참불자의 길

## 점안(點眼)이란?

<대승조성공덕경>에는 "모든 부처나 여래는 곧 법(法, 다르마)의 몸으로서 육체의 몸이 아니다(諸佛如來 卽是法性身 非色相身)"라고 하여 불자들이 형상에 집착하는 것을 경계하고, 진리에 눈 뜰 것을 강조하고 있다.

불자라면 누구나 점을 찾으면 맨 먼저 법당에 들러 부처님께 삼배를 하고, 때로는 불전에 공양물을 올리기도 한다. 부처님께서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불상에 경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불상을 조성하고, 법당에 모셔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일종의 방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 학습에 도움이 되는 환경이 필요한 것처럼,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들에게도 신심을 북돋아 줄 환경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까닭에 사찰에서는 불상을 조성 봉안하고, 불자들은 그 불상 앞에 나아가 경배

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갈 것을 서원한다.

조각가에 의해 제작된 불상은 그 자체로만 본다면, 하나의 물질적 형상에 불과하다. 그러나 불상은 점안(點眼) 의식을 통해 진리의 가르침을 담은 성보로 태어난다. 새로 조성·봉안한 불상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불교 의식이 바로 점안이다. 점안은 또 개안(開眼) 또는 개광명(開光明), 개안공양(開眼供養)이라고도 한다.

점안은 사찰에서 불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의식구(儀式具)에 행하는 의례를 총칭하는 것이다. 사찰에서 행하는 점안은 불상 점안뿐 아니라 나한(羅漢)·천왕(天王)·조탑(造塔)·불화(佛畫)·가사(袈裟) 점안 등이 있는데, 대상에 따라 의식 내용이 조금씩 달라진다.

점안 의식과 비슷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불불식(奉佛式)은 사찰

에서 불상을 새로 모셨을 때 삼신불에게 생명력을 갖춘 불상으로서 증명을 받아 귀의의 대상으로 모시는 의식이다. 불불식도 크게 점안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점안 의식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점안 의식의 절차를 살펴보면,

## 불상·조탑·불화 등 증명받아 성보로

먼저 도량을 깨끗이 정화하고 새로 조성한 불상이 경전에 나타난 부처님 형상의 특징인 32상 80종호를 그대로 갖춰 불교 신앙의 대상이 되어줄 것을 발원하면서 공양과 예배를 올린다. 그 다음 불상에 눈을 그려 넣음으로써 점안 의식을 마친다.

나한 점안·시왕 점안 등도 불상 점안에 준하여 행하는데, 다만 나



△사찰에서 행하는 점안은 불상 점안뿐 아니라 나한·조탑·가사 등이 있다. 사진은 서울 구룡사 와불점안법회.

한과 시왕이 가지는 상호(相好)의 특징에 따라 점안에 대한 발원이 달라진다. 이렇게 점안 의식이 모두 끝나면 비로자나불을 비롯한 삼신불에게 그 불상이 영험을 지니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의식인 불상증명장불(佛像證明唱佛)로 모든 의식을 마무리한다.

탑도 조성하면 불상과 마찬가지로 점안을 하는데, 칠보함에 오색사리를 담아 탑 속에 넣어 영험 있는 탑이 되기를 바란다. 스님들이 법

을 설할 때 입는 가사 또한 점안 절차에 따라 점안에 대한 발원이 달라진다. 이렇게 점안 의식이 모두 끝나면 비로자나불을 비롯한 삼신불에게 그 불상이 영험을 지니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의식인 불상증명장불(佛像證明唱佛)로 모든 의식을 마무리한다.

탑도 조성하면 불상과 마찬가지로 점안을 하는데, 칠보함에 오색사리를 담아 탑 속에 넣어 영험 있는 탑이 되기를 바란다. 스님들이 법

을 설할 때 입는 가사 또한 점안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스 법을 설하는 권위를 얻게 되고, 부처님을 대신하여 지와 덕이 갖추어진 법의(法衣)가 될 수 있다.

점안은 의식 자체로만 본다면 단순히 신앙의 상징물을 경배의 대상으로 격상시키는 차원으로 생각할 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뜻은 진리를 향해 가행진지하겠다는 불자들의 자기다짐이다.

이은자 기자

## 禪과 21세기

"편지에 말씀하시길, '깨달음과 깨닫지 못한, 꿈과 깬이 하나'고 하시니 한 조각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대가 반연(攀緣)하는 마음으로 법을 들으면 이 법도 반연하는 마음일 뿐이다'고 하셨습니다. '지인(知人)은 꿈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없다'는 말은 '있다 없다'고 할 때의 '없다'가 아닙니다. 꿈과 꿈 아님이 하나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세간을 보면 도리어 꿈 속의 일과 같습니다. 경전 가운데 분명한 글이 있습니다. '꿈은 전적으로 망상(妄想)인데도 중생은 거꾸로 뒤바뀌어 매일 대하는 눈 앞의 경계를 진실하게 여기고 이 모든 경계가 꿈인 줄은 전혀 알지 못한다.'

더구나 그 가운데에서 다시 허망한 분별을 내어서 잠과 꿈과 깨어 있음을 말하니, 이것은 바로 꿈

속에서 다시 꿈을 말하는 것이며 거꾸로 된 가운데 다시 거꾸로 되는 것임을 전혀 모르고 하는 짓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꿈이 곧 진실이며 모든 진실이 곧 꿈이어서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으니, 지인에게는 꿈이 없다는 뜻이 이와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마음을 눈 앞에 드러나는 의식(意識)이라고 여깁니다. 그리하여 공부의 의식 속에서 의식적으로 행하고 있다. 그러나 의식은 눈·귀·코·혀·몸·마음이라는 여섯 가지 지각기관과 색·소리·냄새·맛·촉각·생각이라는 여섯 가지 지각의 대상이 접촉하고 반연(攀緣)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상대적이고 무상(無常)하게 변화하는 인연법(緣法)일 뿐이다. 따라서 의식에만 머물러 의식만을 보고 있다면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진공

## 서장 통한 선 공부 40

## 향시랑(向侍郎)에 대한 답서

## 法은 언제나 그대로다



김태완 부산대 강사·철학

묘유(眞空妙有)의 진실한 마음을 알 수가 없다.

보통 선을 공부하는 이들이 공부의 완성도를 재는 척도로서 깨어 있을 때와 잠잘 때가 한결 같다는 오매일여(寤寐一如)를 말한다.

이것은 깨어 있을 때 한 순간에도 화두(話頭)를 놓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꿈 속에서도 화두를 한 순간도 놓치지 않으며 나아가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 속에서도 화두를 한 순간에도 놓치지 않을 때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통 공부인들이 빠져드는 잘못된 길은, 잠잘 때와 깨어 있을 때가 한결 같다는 오매일여를 두고 의식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이라고 착각해 버리는 것이다. 즉 깨어 있을 때에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화두를 의

식하고 있고, 그렇게 화두를 의식하는 행위가 꿈에까지 나타나고, 나아가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 속에서도 그렇게 화두를 의식하는 행위가 끊어지지 않아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매일여가 무엇인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화두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어리석음으로서, 그야말로 반연(攀緣)하는 마음으로 법을 들으면 이 법도 반연하는 마음일 뿐이다'는 말에 딱 맞맞은 것이다.

자나 깨나 화두를 들고 있다는 말은 '뜰 앞의 잣나무'라든가 '개에게 불성이 없다'는 등의 특정한 '화두'라는 말마디를 의식 속에서 늘 생각하며 놓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만약 의식적으로 이런 말마디를 늘 기억하며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반연하는 의식으로서 허망한 상(相)에 막혀서 성(性)을 보지 못하는 것이요 색(色)에 막혀서 공(空)을 알지 못하는 일이다. 이것은 '있다 없다'라는 분별심(分別心)에 빠져 있는 것이니, 꿈과 잠과 깨어 있음이 하나라는 말은 이런 분별심과는 십만리나 떨어져 있다.

'화두는 곧 법(法)을 가리킨다. 법(法)은 곧 나 자신으로서 붙잡거나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은 깨어 있음과 꿈과 잠 없는 잠이라는 여러 가지 변화하는 경계를 드러내지만, 언제라도 법은 그대로이다. 의식의 경계에서 보면 꿈과 잠과 깨어 있음이 제각각 다르지만, 법을 알면 꿈도 법이요 잠도 법이요 깨어 있음도 법이니, 잠자는 것이 곧 깨어 있음이요 깨어 있음이 곧 꿈꾸는 것이다. 그러니 언제 화두를 놓칠 수가 있겠는가. <http://www.mindfree.net/>

# 손조각품 雪山白玉佛

釋迦世尊께서成道할  
雪山玉石으로造成한圓滿  
慈悲하시고透徹智慧가  
具足하신 無上圓滿聖像

이시다  
二五〇五年二月二十一日  
小納五翁謹書

■ 추진서

고불종림 방장 석옹 큰스님